

한국어 의태어 기계번역과 인간번역 비교 고찰*

— 현대소설의 한중번역을 중심으로 —

정 영 지**

<目次>

I. 서론	3. 3음절 의태어
II. 본론	4. 4음절 의태어
1. 1음절 의태어	III. 결론
2. 2음절 의태어	

I. 서론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요즘 외국어 교육과 학습방법, 번역작업 등의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번역작업에서 지금까지는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간이 수행하는 번역작업이 더는 필수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번역과 Chat GPT의 출현으로 기계번역의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기계번역의 사용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¹⁾ 그리고 교육현장에서도 영어를 연구하는 연구자와 교육자들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7084588).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2024년 1월 말 발표된 갤럭시 S24 폰 안에는 Gauss라는 AI가 들어가 인터넷 연결 없이도 13개국 언어를 실시간 번역해 주고 있다. 이제는 가고 싶은 나라의 언어를 한마디 할 줄 몰라도 이 폰만 달랑 들고 여행을 떠나도 소통이 가

중심으로 기계번역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어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교학 방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²⁾

최근 수년간 통번역과 언어학 방면에서 한국어를 기준으로 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언어와의 방향성에서 살펴보는 기계번역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계번역의 정확성/오류’, ‘기계번역 간 혹은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비교’, ‘기계번역과 언어(학)의 세부영역’, ‘기계번역에 대한 인식’, ‘교육현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 ‘포스트에디팅이나 프리에디팅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주제별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³⁾ 더 나아가 기계번역의 젠더인식, AI나 CAT Tool 등의 발전으로 인한 번역사의 직무 기술 및 직명 등의 변화 분석, 기계번역과 저작권법 귀속 문제 등 이념이나 정체성, 기계번역을 둘러싼 제도 등의 문제에 주목한 연구가 새로이 등장했다.⁴⁾ 중국어와 관련된 연구는 기계 번역기의 번역 결과를 분석하여 어떤 오류가 있으며, 어느 정도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와 번역기의 번역 결과를 사후 편집하는 ‘포스트에디팅’ 방법을 어떻게 교육현장에 접목할까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필자는 앞서 수행한 연구에서 인간번역사가 한국어 의태어를 어떻게 中譯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고찰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인간번역사가 번역하기에도 쉽지 않은 의태어를 번역기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번역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다. 그러던 중 번역 수업을 한 학기 진행하면서 한국어 의태어를 인간과 번역기로 번역한 결과를 서로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 상

능하게 되었다. (최재봉, 《AI 사피엔스》, 쌤앤파커스, 2024, 8쪽.)

- 2) 홍연옥, 〈한중 기계번역을 활용한 오류 수정 및 생산성 연구〉, 《중국어문학》 제90집, 2022, 197쪽.
- 3) 이상빈, 〈기계번역에 관한 KCI 연구논문 리뷰: 인문학 저널 논문(2011~2020년 초)의 논의내용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2(2), 2020, 97-98쪽.
- 4) 김지은, 〈AI 시대의 번역학 연구 방향 모색: 한중 기계번역 연구동향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39집, 2024, 104쪽.

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번역기로 한국어 의태어를 중역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참고할 만한 자료가 현재까지는 없었다.⁵⁾

본 연구는 문학작품 속에서 문장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한국어 의태어의 인간과 기계로 번역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비교 분석 작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분석을 진행할 작품은 김영하의 《빛의 제국》이고, 인간번역본은 薛舟가 번역한 《光之帝國》이다.⁶⁾ 원천텍스트에서 의태어가 출현하는 문장을 모두 찾아내어 정리하고, 그 문장들을 인간이 번역한 번역본에서 어떻게 중역하고 있는지 비교 대조하여 정리한다.⁷⁾ 그런 다음 그 문장들을 다시 파파고 번역기, 바이두 번역기, 구글 번역기로 차례로 돌려 그 번역 결과를 각각 정리한다.⁸⁾

-
- 5) 번역기로 한국어 의태어를 中譯하여 대조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으나, 인간번역을 서로 대조한 연구는 여러 편 있다. 예컨대 의태어만을 대조한 정영지의 <《혀》와 《고래》 속의 의태어 中譯 양상 고찰>이 있으며, 의성어와 의태어를 같이 대조한 김명순의 <의성·의태어의 한중 번역에 관한 연구: 정호승의 향아리에 등장한 표현을 중심으로>, 황지연의 <한국 웹툰 중국어 번역의 시청각적 수용성에 관하여-‘신과 함께’ 사례 분석>, 이현주의 <한국문학작품의 번역품질 제고를 위한 중국어 번역전략 연구-의성·의태어를 중심으로>와 <웹툰 상징어의 중국어 번역양상 연구> 등이 있다.
 - 6)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번역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중시를 받고 있다. 薛舟는 徐丽红과 함께 《고래》 《혀》 등의 여러 작품을 번역하였으며, 신경숙의 《외딴방》 번역으로 한국문학 번역상을 받은 전문번역가이다. 원문의 정확한 이해와 미묘한 감정까지 중국어로 표현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
 - 7) 인간이 번역한 부분은 <《빛의 제국》 중국어 번역본 의태어 비교 분석: 대륙본과 타이완본>(《中國語文學》 86집, 2021) 을 작성할 때 정리한 대륙본을 활용하였다.
 - 8) 파파고, 바이두, 구글 번역기는 국내에서 한중/중한 번역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인공지능경망을 기반으로 하여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통해 AI가 스스로 학습하여 번역을 수행하므로 입력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교한 번역이 가능해서 선택하였다. (이주리에, <인공지능경망 기계 번역의 한일/일한 번역 품질에 대한 예비연구>, 《통역과 번역》 20(1), 2018.)

의태어가 포함된 문장별로 정리한 자료는 너무 방대하여 한눈에 볼 수도 없고, 논문 속에 모두 소개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문을 읽거나 후속 작업을 진행할 연구자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의태어 부분만 따로 추출하여, 인간번역, 파파고, 바이두, 구글 번역기 순으로 표로 정리한다. 정리된 표를 근거로 하여 비교분석 작업을 진행한다.

II. 본론

《빛의 제국》에는 의태어가 396회 출현하는데⁹⁾, 사용된 의태어의 종류는 153개이다.¹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의태어는 ‘살짝’으로 32회 사용되고 있다.¹¹⁾ 153종류가 396회나 출현하는 의태어를 분석 작업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음절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음절별로 각각 표를 두 종류로 분류하였다. 인간이 번역한 내용과 두 종류 이상의 번역기가 번역한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해서 정리하였다. 인간과 세 종류 기계가 모두 같게 번역한 경우는 극소수여서, 그 기준을 두 종류 이상의 번역기로 정하였다.

9)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의태어를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중국어에는 象形詞(擬態詞)란 용어가 존재하지 않아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王振鳳은 사전이나 번역자료에서 한국어의 의성어는 중국어의 ‘擬聲詞’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어의 의태어는 중국어에서 대응할 만한 용어가 없다고 하였다. 《現代漢語》의 품사 분류에도 ‘擬聲詞(象聲詞)’는 있으나 ‘象形詞’는 없다. (정영지, 《〈혀〉와 〈고래〉 속의 의태어 申譯 양상 고찰》, 《언어과학연구》 86집, 2018)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의태어란 용어로 통일하여 쓰기로 한다.

10) 앞의 논문에서는 중첩한 의태어를 중첩하지 않은 의태어와 같은 종류로 처리하여 138개 종류로 분류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각각 따로 처리하여 153개 종류로 분류하였다.

11) 1회 출현하는 의태어 종류는 100개, 2회는 17개, 3회 13개, 4회 9개, 8회 3개, 5회 2개이다. 그리고 6회, 9회, 12회, 14회, 15회, 17회, 18회, 30회, 32회 출현하는 의태어는 각각 1종류씩이다.

1. 1음절 의태어

원천텍스트에서 추출한 1음절 의태어는 ‘꼭(3회), 짹, 꺾(8회), 딱(8회), 북, 빙, 싹, 쑥(4회), 씹(15회), 쪽(3회), 착, 축, 킁, 쿡(4회), 텅(3회), 툯(2회), 푹(2회), 확(4회), 핵, 흑, 획(3회), 황’ 등 모두 22종류이다.

(1) 인간과 두 종류 이상의 기계가 번역한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1음절 한국어 의태어를 인간과 두 종류 이상의 번역기로 중역한 결과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12종류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²⁾

〈표 1〉 인간과 기계의 번역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¹³⁾

의태어	인간번역	파파고	바이두	구글
꼭 314)	紧紧/ 紧/ 紧紧	紧紧/ 紧/ 紧紧	紧紧/ 紧/ 紧紧	紧紧/ 紧/ 紧紧
짹	(充)满	(填)满	(填)满	(充)满
꺾 8	使劲/ (咬)紧/紧(闭)/ ×/ (咬)紧/ ×/ 紧(闭)/ (咬)紧	×/ 紧/ 紧/ ×/ 紧/ ×/ 紧/ 紧	使劲/ 紧/ 紧/ 紧/ 紧/ 使劲/ 紧/ 紧	×/ ×/ ×/ ×/ (抵)紧/ ×/ ×/ ×
북	×	嘹嘹	×	×
빙	绕	×	绕	绕
싹	完全	完全	完全	完全
착	紧	紧	×	紧

12) 아래 모든 표에서 정리한 번역기의 의태어 번역 결과는 2024년 1~2월에 진행한 자료이다. 작업을 수행한 기간을 밝히는 이유는 번역기는 딥러닝을 통해 계속 발전할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같은 자료로 번역기를 돌리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13) 표의 제목은 원래 ‘인간과 두 종류 이상의 기계가 번역한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로 해야 하나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인간과 기계의 번역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로 정하였다. 아래에 출현하는 표들에도 같이 적용한다.

14) 의태어 옆의 숫자는 원천텍스트 안의 출현 횟수를 표시하고, ‘×’는 생략하여

의태어	인간번역	파파고	바이두	구글
축	×	×	×	×
텅 3	空荡荡/ 空空如也/ 空荡荡	空荡荡/ 空荡荡/ 空荡荡	空荡荡/ 空空荡荡/ 空荡荡	空荡荡/ 空空/ 空荡荡
툭 2	轻轻/ ×	轻轻/ ×	轻轻/ 拍了拍	×/ 轻
푹 2	×/ ×	×/ ×	(炖)烂/ 深深	×/ ×
휙	×	×	嗖地	×

〈표 1〉에서 보면 원천텍스트 안에 출현하는 의태어를 생략하고 의미를 살리지 않은 예가 인간번역 8회, 파파고 9회, 바이두 3회, 구글 13회로 구글 번역기가 가장 많이 생략하였고, 바이두 번역기가 가장 적게 생략하였다. ‘꼭, 짹, 짹, 축’은 인간과 세 종류 기계번역이 모두 일치한다. ‘꼭’은 3회 모두 단단히 힘을 주거나 세게 누르거나 죄거나 하는 모양의 의미로¹⁵⁾ 사용되고 있어 ‘紧’이나 그 중첩형으로 번역하고 있다. ‘짹(채우다)’은 뒤에 오는 동사 ‘채우다’와 결합하여, ‘가득히 들어차다’의 의미로 쓰이므로 ‘滿’으로 번역하였다. ‘짹(졸음이 짹 가신)’은 ‘모조리 말끔하게’의 의미로, ‘完全’으로 번역하여 의미를 살리고 있다. ‘축’은 인간과 기계가 모두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꼭’은 8회 모두 힘을 주어 단단히 누르거나 죄는 모양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구글 번역기에서는 대부분 번역하지 않고 생략하였으나, 인간과 나머지 두 번역기에서는 ‘使劲, 紧’으로 번역하여 의미를 살리고 있다. ‘북, 푹, 휙’은 인간과 두 개의 번역기에서 모두 생략하여 번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파고 번역기는 몸이 무르고 두툼한 물건을 대번에 찢는 모양이나 소리를 표현하는 ‘북(찢어)’을 물체가 가볍게 마찰하면서 나는 소리를 표현하는 ‘嚓嚓’로 번역하였다. 바이두 번역기는 흠뻑 익도록 삶거나 고거나

번역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래 표들에도 같이 적용한다.

- 15) 원천텍스트 속의 의태어 뜻풀이는 《한국어 시늬말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참조한다.

끓이는 모양을 표현하는 ‘푹 (끓인)’을 ‘흐물흐물하다’라는 뜻의 ‘烂’을 사용하여 ‘(炖)烂’으로 번역하여 그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깊이 숙이는 모양을 묘사하는 ‘(고개를) 푹 (꺾었다)’을 ‘深深’을 사용하여 ‘深深地低下了头’로 번역하여 의미를 살리고 있다. 어떤 행동을 망설이지 아니하고 빠르고 시원스럽게 해내는 모양을 묘사하는 ‘(몸을) 획 (돌리며)’을 신속하게 지나가는 소리를 표현하는 ‘嗖’를 사용하여 ‘嗖地转过身来’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처럼 ‘푹’과 ‘획’은 바이두 번역기가 인간도 생략한 부분을 적절하게 번역하여 의미를 잘 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에 약간 넓은 일정한 범위를 한 바퀴 도는 모양을 표현하는 ‘빙 (돌아)’을 파파고는 ‘拐’로 번역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빙빙 돌다’의 의미인 ‘绕’로 번역하여 의미를 살리고 있다. 물체가 바짝 다가붙는 모양을 묘사하는 ‘착 (붙어)’을 바이두는 번역하지 않았고, 나머지 번역에서는 ‘紧’으로 번역하였다. ‘텅 (빈)’은 뒤에 오는 동사와 함께 ‘텅비다’란 의미의 ‘空荡荡’으로 가장 많이 번역하였다. 가볍게 치거나 털거나 하는 모양을 표현하는 ‘툭 (쳤다)’은 ‘轻轻’으로 번역하여 의미를 살리거나 생략하기도 했고, 바이두에서는 ‘拍了拍’처럼 뒤에 오는 동사와 같이 중첩형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2) 인간과 기계의 번역이 다른 경우

1음절 한국어 의태어를 인간과 번역기로 각각 중역한 양상이 다른 경우는 10종류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인간과 기계의 번역이 다른 경우

의태어	인간번역	파파고	바이두	구글
딱 8	×/ 瞠目结舌/ 就/ 正好/ ×/ 突然/ ×/×	×/ ×/ 就/ 正好/正好/ 突然/ 正好/ 明确	×/ ×/ 就/ 正好/ 正好/ 突然/ ×/ ×	×/ 张大/ 就/ ×/ 正好/ 突然/ ×/ ×
쑥 4	×/ ×/ ×/ ×	×/ 一下子/ 一下子/ ×	×/ ×/ 钻进/ ×	×/ ×/ 直接/ ×

의태어	인간번역	파파고	바이두	구글
씩 15	笑了笑/ ×/ ×/ ×/ 莞尔/ 面带微笑/ ×/ ×/ ×/ 笑了笑/ ×/ 笑了笑/ 笑了笑/ ×/ 笑了笑	咧着嘴/ 咧嘴/ 咧着嘴/ 咧嘴/ 咧着嘴/ ×/ 咧嘴/ 咧着嘴/ 咧嘴/ 咧嘴/ 咧着嘴/ 哧地/ 咧嘴/ 咧着嘴/ 咧着嘴	咧嘴/ 咧嘴/ 咧嘴/ 咧嘴/ 咧嘴/ ×/ 咧嘴/ 咧嘴/ 咧嘴/ 嗤嗤/ 咧嘴/ 咧嘴/ 咧嘴/ 咧着嘴/ ×	咧嘴/ ×/ 笑了笑/ ×/ 笑了笑/ ×/ ×/ ×/ 微/ 咧嘴/ 咧嘴/ ×/ 笑了笑/ 咧嘴/ ×
쭉 3	伸起/ ×/ ×	挺直/ ×/ 伸直	伸直/ ×/ 伸直	挺直/ ×/ ×
컹	喘不过气来	气喘吁吁	突然	气喘吁吁
쿵 4	戳了戳/ 重重/ 戳了戳/ 戳了戳	戳了一下/ 刺了一下/ ×/ ×	捅了一下/ 戳了一下/ 猛地/ 捅了一刀	×/ (刺)痛 / 戳了戳/ 戳了戳
확 4	扑面而来/ ×/ 紧(皱)/ ×	×/ ×/ ×/ ×	扑鼻而来/ 干脆/ 皱了皱/ ×	×/ ×/ ×/ ×
훅	×	忽地	呼呼地	×
획 3	×/ ×/ 使劲	×/ 嗖地/ ×	×/ 嗖地/ ×	×/ ×/ ×
횡	轰(的一聲)	×	嗖地	×

〈표 2〉를 보면 원천텍스트 안에 출현하는 의태어를 생략하고 의미를 살리지 않은 예가 인간번역 23회, 파파고 15회, 바이두 13회, 구글 26회로 구글 번역기가 가장 많이 생략하였고, 바이두 번역기가 가장 적게 생략하였다. 인간은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으나 기계가 번역한 예를 들면 ‘쭉(4회), 훅’ 등이다. 불쭉 내밀거나 나오거나 들어가는 모양을 표현하는 ‘쭉(집어넣다, 들어가다)’을 인간번역은 4회 모두 의미를 살리지 못했으나, 파파고는 한 번은 생략하였고 두 번은 ‘一下子’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의미를 살리고 있다. 바이두와 구글도 ‘쭉(들어가)’을 ‘뚫고 들어가다’란 의미의 ‘钻进’과 ‘바로’란 의미의 ‘直接’로 각각 한 번씩 번역하고, 나머지는 모

두 생략하였다. 불길이 갑자기 아주 세게 타오르는 모양을 묘사하는 ‘혹(타올랐다)’을 인간은 의미를 살리지 못했는데, 파파고는 ‘忽地’로, 바이두는 불이 붙는 소리나 모양을 표현하는 ‘呼呼’로 번역하여 의미를 살렸다.

1음절 의태어는 ‘컱, 혹, 횡’을 제외하고는 모두 3회 이상 출현하고 있다. ‘딱’은 8회 출현하는데 단단한 물건이 부딪치거나 부러질 때에 나는 소리나 모양을 표현하는 ‘(한 대) 딱 (때려도)’은 모두 생략하였다. 활짝 바라지거나 한껏 벌어진 모양을 묘사하는 ‘(입을) 딱 (벌린)’을 인간은 앞뒤에 있는 문장성분과 함께 놀라 어리둥절하며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려 아무런 말도 못 하는 모양을 묘사하는 ‘瞠目结舌’로 번역하였다. 이 부분은 주인공과 친구들이 여자친구인 정희가 리듬체조 중 도약과 회전을 하는 모습에 놀라 넋 놓고 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번역사는 이 의미를 잘 살리고 있는데, 기계번역은 생략하거나 ‘张大’로만 번역하여 문맥의 의미를 잘 살리지는 못하고 있다. 아주 단호하게 끊거나 과단성 있게 행동하는 모양을 표현하는 ‘딱 (한 번만이에요)’은 모두 ‘就’로 번역하여 의미를 살렸고, 갑자기 마주치는 모양을 표현하는 ‘딱 (마주치고)’과 완전히 맞닿거나 들어맞는 모양을 묘사하는 ‘딱 (맞았다)’은 ‘正好’로 번역하여 의미를 살리고 있다. 갑자기 떠 오르는 모양을 표현하는 ‘딱 (떠오르는)’은 모두 ‘突然’으로 번역하였고, ‘딱 (걸렸습시다)’과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은 파파고만 ‘正好’와 ‘明确’로 번역하고, 인간을 포함한 나머지 번역기들은 모두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소리 없이 싱겁게 얼핏 한 번 웃는 모양을 묘사하는 ‘씩(웃다)’은 15회 출현하는데, 인간번역에서는 생략하거나, 동사를 중첩하거나, 빙긋 웃는 모양을 표현하는 ‘莞尔’을 활용하거나, ‘面带微笑’로 다양하게 번역하였다. 이에 반해 파파고와 바이두에서는 대부분 웃거나 울거나 불만스러울 때의 표정을 주로 나타내는 ‘咧嘴’로 번역하고 있다. 곧게 펴거나 벌리는 모양을 묘사하는 ‘쭉(펴고, 뻗었다)’을 인간은 ‘(伸)起’로 기계는 ‘(挺, 伸)直’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종이나 피륙 따위를 힘차게 한 가닥으로 찢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미의 ‘쭉(찢어)’은 모두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크게 또는

깊이 박거나 찌르거나 쪼거나 하는 모양을 표현하는 ‘쿵 (찼렀다)’은 4회 출현하는데 인간번역에서는 주로 동사를 중첩함으로 의미를 살렸다. 번역기 중에는 바이두가 가장 다채롭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중 손가락으로 쿵 찌른 것을 ‘捅了一刀’로 번역한 것은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잘못 번역한 것으로 여겨진다.

‘확, 획, 횡’ 등의 의태어는 중국어로 번역해 내기가 쉽지 않은 의태어이다. 바람이나 냄새 또는 어떤 기운이 갑자기 세계 끼치는 모양을 묘사하는 ‘확’은 4회 출현하는데, 파파고와 구글은 모두 생략하였다. ‘(냄새가) 확 (끼쳐왔다)’을 인간은 냄새나 바람 등이 거세계 확 불어온다는 뜻의 ‘扑面而来’로, 바이두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확 풍긴다)는 의미의 ‘扑鼻而来’로 번역해 의미를 살리고 있다. ‘확 (이혼하다)’의 경우는 바이두만 ‘干脆’로 번역해 어느 정도 의미를 살리고 있고, ‘확 (찌푸리다)’을 인간은 ‘紧(皱)’으로 바이두는 ‘皱了皱’로 번역하였다. ‘획’은 3회 출현하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모양을 표현한 ‘획 (사라졌다)’을 인간번역에서는 의미를 살리지 않았으나, 파파고와 바이두는 신속하게 지나가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嗖’로 번역해 의미를 살리고 있다. 갑자기 무엇을 세계 던지는 모양을 표현한 ‘획 (던져버렸다)’을 인간은 ‘使劲’으로 번역하였고, 번역기는 모두 생략하였다. 기계나 바퀴 따위가 빠르고 세계 돌아가는 소리나 모양을 표현하는 ‘(주차 엘리베이터 안으로 차를) 횡 (한 방에 집어넣었다)’은¹⁶⁾ 원천 텍스트에서 소리와 모양을 모두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소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번역하였고, 바이두는 신속하게 지나가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嗖’로 번역하였다. 숨이 답답하게 막히는 모양을 표현하는 ‘컹 (막혔다)’을 인간은 ‘喘不过气来’, 번역기는 숨을 크게 헐떡이는 모양을 표현하는 ‘气喘吁吁’, 그리고 ‘突然’을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16) ‘한 방에 집어넣었다’란 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차했다는 의미인데, 기계번역 중에서는 바이두만 ‘一下子放进去了’로 정확하게 번역하고, 파파고는 ‘一枪打进去了’로, 구글은 ‘把它放在房间里’로 오역하고 있다.

2. 2음절 의태어

2음절 의태어는 ‘가득(4회), 깜빡(2회), 깜짝(8회), 꼬박, 꼼짝, 팡팡, 꾸벅, 쿡쿡, 넬름, 덜컹, 들들, 둥둥(2회), 똑똑, 문득(18회), 바싹(4회), 바짝(2회), 버럭, 번뜩, 번쩍(4회), 벌떡(14회), 북북, 불끈, 불룩, 불쑥(5회), 비쭈, 빙빙, 빙긋, 빠끔, 빼끔, 살살, 살짝(32회), 썰쭈, 생긋, 선뜻(3회), 성큼(3회), 스윽, 슬슬(2회), 슬쩍(30회), 실쭈, 쑤욱(2회), 쓰윽, 얼핏(3회), 와락, 울컹(3회), 줄줄, 질끈, 질질(2회), 쭈욱, 쭈쭈, 찰끔, 착착, 철철, 콕콕, 탈탈, 텅텅, 통통, 퍼뜩, 필쩍, 필필, 평평, 피식(2회), 훌랑, 활짝(4회), 훔씬(17회), 휘청, 흘깃, 힐끔(3회), 힐끗(9회), 힘껏’ 등 모두 69종류로, 2음절 의태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1) 인간과 두 종류 이상의 기계가 번역한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2음절 한국어 의태어를 인간과 두 종류 이상의 번역기로 중역한 결과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15종류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인간과 기계의 번역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의태어	인간번역	파파고	바이두	구글
가득 4	(布)满/ ×/ (写)满/ (充)满	满/ (挤)满/ (挤)满/ (塞)满	满是/(挤)满/ 充斥/ 满	(充)满/ (充)满/ (填)满/ (填)满
넬름	(吐)出	(伸)出	(吐)出	(伸)出
들들	×	×	×	×
문득 18	突然/ 突然间/ 突然/ 突然间/ 突然/ 突然/ 忽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顿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猛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의태어	인간번역	파파고	바이두	구글
바짝 2	紧张/ 紧	紧/ 紧	紧/ 紧紧	靠近/ 紧
불쑥 5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猛地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脱口而出/ 突然/ 突然/ 突然
빼꼼	×	×	×	×
살살	轻轻	轻轻	轻轻	轻轻
와락	猛地	猛地	猛地	×
질끈	紧紧	紧	紧	紧紧
퍼뜩	×	×	×	突然
펄펄	×	滚烫	×	×
홀랑	×	×	×	×
활짝 4	满面笑容/ 满面笑容/ ×/ 敞开	满面笑容/ ×/ 笑容满面/ 敞开	笑容满面/ 笑容满面/ 咧嘴/ 敞开	笑容灿烂/ 灿烂/ 灿烂/ 张开
힘껏	用力	用力	用力	用力

〈표 3〉을 보면 원천텍스트 안에 출현하는 의태어를 생략하고 의미를 살리지 않은 예가 인간번역 7회, 파파고 5회, 바이두 5회, 구글 5회로 인간번역에서 가장 많이 생략하였다. ‘가득, 널름, 문득, 바짝, 불쑥, 살살, 와락, 질끈, 힘껏’ 등과 같이 묘사하는 동작의 뜻이 비교적 명확한 의태어는 사람이나 기계가 거의 동일하게 번역함을 알 수 있다. 중국어로 번역하기에 쉽지 않은 ‘둘둘, 빼꼼, 홀랑’ 등의 의태어는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에서 모두 생략하였다. 큰 물건이 여러 겹으로 말리거나 감기는 모양을 묘사한 ‘둘둘 (말린)’은 ‘卷’으로, 작은 구멍이나 틈 사이로 아주 조금만 보이는 모양을 표현하는 ‘빼꼼 (내밀고)’은 ‘探’으로, 조금 가지고 있던 돈이나 재산 따위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모양을 표현한 ‘홀랑 (털어가는)’은 ‘抢’으로만 의태어 의미를 살리지 않고 각각 번역하였다. 많은 물이 계속해서 몹시 끓

는 모양을 묘사하는 ‘펼 펼 (펼치는)’은 파파고의 번역이 가장 묘사성이 두드러지는데, 마치 펼 펼 펼치는 물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滚烫’을 활용하여 그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 얼굴에 가득히 웃음을 띤 모양을 묘사하는 ‘활짝 (웃으며)’은 3회 출현하는데, 구글만 ‘灿烂’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满面笑容’으로 번역하였다. 한껏 시원스럽게 열린 모양을 표현하는 ‘활짝 (열리는)’은 구글은 ‘张开’로 나머지는 ‘敞开’로 번역하였다. 구글보다는 인간과 파파고, 바이두 번역이 더 의미를 잘 살리고 있는 듯하다.

(2) 인간과 기계의 번역이 다른 경우

2음절 한국어 의태어를 인간과 번역기로 각각 중역한 양상이 다른 경우는 54종류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인간과 기계의 번역이 다른 경우

의태어	인간번역	파파고	바이두	구글
깜짝 2	突然/ 突然	×/ 一下子	×/ 一下子	×/ ×
깜짝 8	(吓了)一跳/ 大吃一惊/ 一跳/ 大吃一惊/ ×/ 大(惊)/ 大吃一惊/ ×	一跳/ 一跳/ 一跳/ 一跳/ 一跳/ 一跳/ ×	一跳/ 一跳/ 一跳/ 一跳/ 一跳/ 一跳/ 一跳/ 一跳	×/ 一跳/ 一跳/ ×/ ×/ ×/ ×/ 一跳
꼬박	通宵	整整一整天	×	×
꼼짝	动弹不得	一动不动	一动不动	无法行驶
광광	×	冻僵	硬邦邦	×
구벽	毕恭毕敬	鞠躬	鞠躬	低下头
꼭꼭	使劲/ 使劲/ 使劲	紧/ 紧紧/ (按)压	使劲/ 使劲/ 使劲	×/ ×/ ×/
덜컹	猛然	突然	突然	突然
둥둥 2	飞来飞去/ 飘浮	漂浮/ 漂浮	漂浮/ 漂浮	漂浮/ 漂浮
뚝뚝	簌簌	咔嚓咔嚓	×	流淌下来

의태어	인간번역	파파고	바이두	구글
바삭4	干巴巴/ 干巴巴/ 消瘦/ 干透	消瘦/ 干巴巴/ 干巴巴/ ×	×/ 干巴巴/ 干巴巴/ 干巴巴	×/ ×/ ×/ ×
버럭	大	猛然大	勃然大	×
번쩍	忽然	突然	突然	突然
번쩍 4	一把/高(举)/ 猛地/ 如梦方醒	一下子/ 高(举)/猛地/ ×	猛地/ 猛地/ 猛地/ ×	×/ ×/ ×/ ×
벌떡 14	猛然/ 猛然/ 猛地/ 突然/ 猛地/ 突然/ 猛地/ ×/ 猛地猛地/ 猛地/ 猛地/ 猛地/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突然/ 猛地/ 猛地/ 跳了起来/ 一跃而起/ 跳起来/ 猛地/ 跳起来/ 猛地/ 跳了起来/ 突然	突然/ 猛地/ 突然/ 突然/ 猛地/ 猛地/ 猛地/ 一下子/ 一下子/ 猛地/ 跳起来/ 猛地/ 一下子/ 突然	跳起来/ 突然/ 跳起来/ 跳起来/ ×/ 突然/ 跳了起来/ ×/ ×/ ×/ 跳起来/ 跳了起来/ 跳了起来/ 突然
북북	使劲	×	×	×
불끈	立刻	×	勐地	充沛
불룩	×	鼓鼓	鼓鼓	鼓鼓
비죽	(留着)寸头	撇着嘴	撇起来	高(头)
빙빙	转了转	(转)一圈	转来转去	(走)一圈
빙긔	面露微笑	微微	笑咪咪	微
빠끔	×	猛然	吧嗒一声	撬开
살짝 32	轻轻/ 漂漂/ 轻轻/ 隐隐/ 稍微/ 有点儿/ 小雨/ 轻轻/ 轻轻/ 轻轻/ ×/ 稍许/ 稍微/稍/ 微微/ 蓦地/	×/ ×/ ×/ 略/ 微微/ 有些/ 小雨/ 微微/ 微微/ 轻轻/ ×/ 略/ 稍微/ 有点/ 稍微/ 微微/ 稍微/ 轻轻/ 稍微/ 稍微/	轻轻/ 微微/ 微微/ 轻微/ 微微/ 有点/ 点(雨)/ 轻轻/ 轻轻/ 轻轻/ ×/ 有点/ 稍微/ 有点/ 稍微/ 微微/	轻轻/ 轻微/ 微/ 略/ 有点/ 有些/ 小雨/ 轻轻/ 微微/ 轻轻/ ×/ 有些/ 稍微/ 轻微/ 微/ 微微/ 微微/

의태어	인간번역	파파고	바이두	구글
살짝 32	×/ 轻轻/ 稍微/ 稍微/ 轻轻/ 轻轻/ 轻轻/ 轻轻/ ×/ 轻微/ 多少有些/ 轻轻/ 轻轻/ 轻轻/ 轻轻/ 轻轻	微微/ 微微/ 微微/ 稍微/ ×/ 略微/ 微微/ 稍微/ 微微/ 轻轻/ 轻轻/ 微微	有点/ 轻轻/ 微微/ 稍微/ 微微/ 微微/ 微微/ 微微/ ×/ 有点/ 略/ 稍稍/ 微微/ 轻轻/ 轻轻/ 微微	×/ 微微/ 微微/ 一丝/ 微微/ 微微/ 微微/ ×/ 有点/ 微微/ 稍微/ 微微/ 轻轻/ 轻轻/ 微微
셀쪽	气呼呼	微微	×	一脸撅着嘴
생긱	莞尔	微微	微微	灿烂
선뜻 3	忽然/ 百思不得其解/ 痛快	轻易/ ×/ 欣然	×/ ×/ 爽快	心甘情愿/ 立即/ 很乐意
성큼 3	飞快/ 迅速/ 大步	大步/ 大踏步/ 大步	大步/ 大步/ 大步	×/ ×/ 大步
스욱	迅速	×	仔细	环顾
슬슬 2	悄悄/ 悄悄	渐渐/ 慢慢	慢慢/ 慢慢	慢慢/ 慢慢
슬쩍 30	悄悄/ 轻轻/ 微微/ 悄悄/ 悄悄/ 悄悄/ 不动声色/悄悄 / 轻轻/看了 看/ 一眼/ 悄悄/ 轻轻/ 不动声色/ 悄悄/ 悄悄/ 看了看/ 悄悄/ 悄悄/ ×/ 在无形中/ ×/ 悄悄/ ×/ 轻轻/ 偷/ 轻轻/ 悄悄/ 不动声色/ 轻轻	×/ 悄悄/ 悄悄/ 偷偷/ 悄悄/ 悄悄/ 悄悄/ 悄悄/ 轻轻/ 偷偷/ 悄悄/ 悄悄/ 微微/ (环顾了)一下/ 悄悄/ 悄悄/ ×/ ×/ 悄悄/ 轻轻/ ×/ 悄悄/ (环顾了)一下/ 悄悄/ 眯缝/ 偷偷/ ×/ 悄悄/ (扫视了)一下/ 轻轻	偷偷/ 偷偷/ 悄悄/ 轻轻/ 稍微/ 偷偷/ 悄悄/ 偷偷/ 轻轻/ 偷偷/ 悄悄/ 偷偷/ 微微/ 稍微/ 偷偷/ 悄悄/ ×/ 轻轻/ 悄悄/ 悄悄/ 悄悄/ 一眼/ (环顾了)一下/ 轻轻/ 偷偷/ 偷/ 微微/ 偷偷/ 一眼/ 轻轻	(看)一眼/ ×/ 稍微/ 快速/ 稍微/ 一眼/ 迅速/ ×/ 轻轻/ (看了)一眼/ 悄悄/ 一眼/ 微微/ 快速/ 一眼/ 偷偷/ 一眼/ 一眼/ 慢慢/ ×/ 巧妙/ 一眼/ 快速/ 轻轻/ 微微/翻了翻/ 微微/ ×/ (环视了)一下/ ×

의태어	인간번역	파파고	바이두	구글
실쭉	×	微微	笑了笑	×
쭈욱 2	使劲/ ×	×/ 一下子	×/ ×	深深/ ×
쓰욱	看看	×	扫一扫	快速
얼핏 3	猛然/乍(看)/乍(看)	×/乍(一看)/乍(一看)	瞥见/乍(一看)/乍(一看)	×/乍(一看)/乍(一看)
울컥 3	×/夺眶而出/突然	×/一下子/哽咽着	哽咽/夺眶而出/哽咽着/	×/夺眶而出/×
줄줄	涔涔	淋漓	×	淋漓
질질 2	拖着长腔/ ×	拖拖拉拉/ ×	没完没了/ ×	×/ ×
쭈욱	迅速	拉长	伸长	伸出
쭈쭈	×	×	伸展	伸出
절끔	黯然	×	×	×
착착	按部就班	整齐	×	×
철철	十足	充满	四射	×
콕콕	猛	×	×	×
탈탈	甩干	×	啪啪	甩掉
텅텅	×	空荡荡	空荡荡	×
통통	很高	鼓鼓	鼓鼓	×
필쩍	怒气冲冲	跳了起来	跳了起来	跳了起来
평평	×	泪流满面	哗哗	很多
피식 2	×/ ×	嗤/扑哧一声	哧哧/哧哧	咯咯/咯咯
훨씬 17	多了/多了/×/得多/更/更/更/更/×/遠遠/還/更加/更/得多/×/更/許多	得多/多了/很多/更/更/更/更/得多/得多/更/更加/更/很多/更/更/更加	够了/多了/多了/得多/得多/更/得多/更/得多/得多/更/更/更/更/得多/更/更加	多了/很多/得多/得多/得多/更加/更/还/更加/远远/更/许多/更/更/得多/更/更加
휘청	沉重	摇摇晃晃	×	×

의태어	인간번역	파파고	바이두	구글
흘깃	×	(瞟)一眼	(瞟)一眼	(看)一眼
힐끔 3	(扫了)一眼/ 看了看/ 看了看	(瞥)一眼/ (瞥)一眼/ (瞟)一眼	(瞟)一眼/ (瞟)一眼/ (瞟)一眼	(看)一眼/ (看)一眼/ (看)一眼
힐끗 9	斜着眼睛/ 偷偷/看了看/ 看了看/ (瞥)一眼/ 悄悄/ 悄悄/看了看/ 悄悄	(扫视)一下/ (瞥)一眼/ (扫视)一下/ (扫视)一下/ (扫视)一下/ (扫视)一眼/ (扫视)一下/ 瞥见/ (看)一眼	(瞥)一眼/ (扫)一眼/ (瞟)一眼/ (看)一眼/ (瞟)一眼/ (瞟)一眼/ (瞥)一眼/ (瞥)一眼/ (看)一眼	(看)一眼/ (看)一眼/ (看)一眼/ (看)一眼/ (瞥)一眼/ (看)一眼/ (看)一眼/ (看)一眼/ (看)一眼

〈표 4〉를 보면 원천텍스트 안에 출현하는 의태어를 생략하고 의미를 살리지 않은 예가 인간번역 24회, 파파고 28회, 바이두 20회, 구글 50회로 구글 번역기가 가장 많이 생략하였고, 바이두 번역기가 가장 적게 생략하였다. 인간은 번역했으나, 세 종류 번역기에서 모두 생략한 의태어는 ‘복복, 찢끔, 콕콕’ 세 종류이다. 예를 들어 보면 자꾸 거칠고 세게 굽는 모양을 묘사한 ‘복복 (굽어대고)’을 ‘使劲’으로, 눈물을 아주 조금 흘리며 우는 모양을 묘사하는 ‘찢끔 (눈물을 흘렸다)’을 ‘黯然(流泪)’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인간도 ‘찢끔’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하지는 못하고 있다.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꾸 얇게 찌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콕콕 (찌르는)’을 ‘猛(刺)’으로 번역하였는데, 인간번역에서도 찌르는 강도가 ‘콕콕’보다는 강한 형용사를 선택하여 제대로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인간번역에서는 생략했으나 번역기에서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것은 ‘팡팡, 불룩, 빠끔, 실쪽, 쪽쪽, 텅텅, 펑펑, 피식, 흘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주 단단히 얼어붙은 모양을 표현하는 ‘팡팡 (언)’을 인간과 구글번역기는 그 의미를 살리지 않았으나, 파파고는 ‘冻僵’으로, 바이두는

‘(冻得) 硬邦邦’으로 번역하였다. 길으로 쭉 내민 모양을 묘사하는 ‘불룩 (나오고)’을 밖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팽창한 모양을 묘사하는 형용사 ‘鼓鼓’로 번역하여 의미를 살렸다. 살며시 문 따위를 조금 여는 모양을 묘사하는 ‘빠끔 (열고)’을 파과고는 ‘猛然’으로, 바이두는 ‘吧嗒一声’으로, 구글은 ‘撬(开)’로 번역하였으나 모두 ‘빠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떤 감정의 표현으로서 입이나 눈이 한쪽으로 약간 실그러지게 움직이는 모양을 묘사하는 ‘실쭉 (웃었다)’을 인간과 구글번역기는 ‘笑’로만 번역하고 의미를 살리지 못했으나, 파과고는 ‘微微’로, 바이두는 동사를 중첩한 ‘笑了笑’로 번역하였다. 크고 세게 잇따라 퍼거나 벌리거나 뻗는 모양을 묘사하는 ‘쭉쭉 (뻗으며)’을 인간과 파과고는 동사를 포함하여 구절 전체를 번역하지 않았다. 바이두는 ‘伸展’로, 구글은 ‘伸出’로 뒤에 놓인 동사와 함께 번역하여 의미를 살리고 있다. 여럿이 다 속이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모양을 묘사하는 ‘텅텅 (빈)’을 인간과 구글은 앞뒤에 있는 문장성분을 활용하여 설명하듯이 의미를 번역하였으나, 파과고와 바이두는 묘사성이 뛰어난 형용사 ‘空荡荡’으로 번역하여 그 의미를 살리고 있다. 액체 따위가 약간 넓은 구멍으로 세차게 쏟아져 나오는 모양을 묘사하는 ‘(눈물을) 펑펑 (흘렀고)’을 인간은 ‘眼含热泪’로, 파과고는 ‘泪流满面’로, 바이두는 ‘眼泪哗哗地流’로, 구글은 ‘流了很多眼泪’로 번역하였다. 인간번역에서는 두 눈에 가득 눈물이 고이기는 했지만 ‘펑펑’의 의미를 살리지는 못해서 생략으로 처리했다. 파과고와 바이두가 나름 묘사하듯이 ‘펑펑’의 의미를 살렸다고 볼 수 있고, 구글은 ‘很多’로 번역하여 의태어로 표현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느낌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한 듯하다. 실없이 가볍게 웃는 소리나 모양을 표현하는 ‘피식 (웃었다)’은 2회 출현하는데 인간은 ‘笑’로만 번역해 모두 생략하였다. 파과고는 ‘嗤地/ 扑哧一声’로, 바이두는 ‘哧哧/ 哧哧’로, 구글은 ‘咯咯/ 咯咯’로 모두 의성어로 번역하여 의미를 살리고 있다. 가볍게 한 번 흘려보는 모양을 묘사하는 ‘흘깃 (쳐다보았다)’을 인간번역에서는 의태어의 의미를 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사의 선택도 한 곳을 집중해서 보는 ‘盯’으로 번역하여 문장전체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다. 파파고와 바이두는 모두 ‘瞟了一眼’으로 번역하여 가장 의미를 잘 살리고 있고, 구글은 ‘看了一眼’로 번역해 동사의 선택이 조금 아쉽다. 이상의 예들을 보면 부분적이긴 하나 파파고와 바이두의 번역이 인간이 번역한 것 보다 문맥의 흐름에 더 잘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3회 이상 출현한 의태어는 ‘깜짝, 바짝, 번쩍, 벌떡, 살짝, 선뜻, 성큼, 슬쩍, 얼핏, 울컥, 웅얼, 웅얼, 웅얼, 웅얼, 웅얼, 웅얼, 웅얼’ 등 13종류이다. 이 중 몇 종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깜짝(놀라)’을 번역기는 생략한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吓了)一跳’로만 번역하였으나, 인간은 ‘(吓了)一跳’ 이외에 뒤에 오는 동사와 함께 성어를 활용하여 ‘大吃一惊’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바짝’은 첫 번째 출현한 문장에서만 몸이 매우 마른 모양을 묘사하는 의미로 쓰였고, 나머지 3회는 모두 물기가 전혀 없이 말라 버린 모양을 묘사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인간은 ‘바짝(야위어)’을 ‘干巴巴’로, ‘바짝(말라)’을 ‘消瘦’로 바꾸어 잘못 번역하였다. 1회 생략하여 번역하지 않긴 했으나 파파고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려 번역하였다. ‘번쩍’은 4회 출현하는데, 이 중 앞의 세 번은 물건을 가볍게 들어 올리거나 높이 들어 올리는 모양을 묘사하고 있고, 마지막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 네 번째 ‘(정신이) 번쩍(듣)’을 번역기는 모두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으나, 인간은 앞 뒤 성분과 함께 성어 ‘如梦方(初)醒’으로 번역하였다. 동작이 빠르고 시원한 모양을 묘사하는 ‘선뜻’은 3회 출현하는데 인간과 구글 번역기에서는 생략하지 않고 문맥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번역하였다. 그 중 첫 번째 예문의 ‘선뜻(손이 가질 않았다)’을 인간은 ‘忽然’으로 번역해서 파파고의 ‘轻易’나 구글의 ‘心甘情愿’ 보다는 원문의 뜻을 잘 살리진 못한 듯하다.

‘성큼’은 3회 출현하는데 첫 번째 예문의 ‘(차는 교문을 지나) 성큼(들어섰다)’은 (동작이) 망설임 없이 빠르고 시원스러운 모양을 표현하는 의미로 쓰였다. 인간은 자동차의 빨리 움직이는 모양을 잘 반영하여 ‘飞快’로 문맥에 어울리게 번역했으나, 번역기는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다리를 높이 들어 크게 떼어 놓는 모양의 ‘大步’로 잘못 번역하였다. ‘얼핏’은 지나는 곁에 잠깐 나타나는 모양 혹은 생각이나 기억 따위가 문득

떠오르는 모양을 표현하는데, 원천텍스트에 3회 모두 전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인간번역에서 첫 번째 예문의 ‘얼핏’을 ‘猛然’으로 번역한 것은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번역한 듯하다. ‘울컥’은 갑자기 몹시 토하는 모양과 혹은 격한 감정이 갑자기 치미는 모양을 나타낸다. 3회 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울컥 (토했다)’과 두 번째 ‘울컥 (눈물이 솟았다)’은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세 번째 ‘울컥 (감정이 북받쳐 올라)’은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번역된 것 중 바이두는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울컥’을 모두 ‘哽咽’로 번역했는데, 첫 번째 예문에서 ‘哽咽’로 번역한 것은 문맥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홀깃, 힐끔, 힐끗’ 세 종류의 의태어는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번역기가 거의 비슷하게 번역하고 있다.

이외에 ‘쭈욱 (늘여 신고)’을 인간은 ‘迅速(穿上)’으로, 파파고는 ‘拉长’, 바이두는 ‘伸长’, 구글은 ‘伸出’로 각각 번역하였다. 이 중 인간번역은 원천텍스트의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펼쩍 (뛰었다)’을 수식 받는 동사와 같이 인간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다’란 의미의 성어 ‘怒气冲冲’으로, 번역기에서는 모두 ‘跳了起来’로 번역하였다. 원천텍스트에서 아영이가 펼쩍 뿔 것은 친구인 현미가 자신의 엄마가 계모라고 해서 한편으론 놀라면서 한편으론 농담하지마란 의미의 흔히 친구끼리 주고받는 ‘미친년’ 하면서 보인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¹⁷⁾ 인간은 원천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고, 번역기도 문맥의 뜻을 살리지 못하고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 그대로 번역하고 있다.

3. 3음절 의태어

3음절 의태어는 ‘부르르, 빙긋이, 스프룩(2회), 슬며시, 어슬렁, 우수수, 지그시(4회), 착착착(2회), 파르르, 헤벌레, 화들짝(3회)’ 등 모두 11종류로 가장 적게 출현하고 있다.

17) 정영지, 앞의 논문, 301쪽.

(1) 인간과 두 종류 이상의 기계가 번역한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3음절 한국어 의태어를 인간과 두 종류 이상의 번역기로 중역한 결과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2종류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인간과 기계의 번역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의태어	인간번역	파파고	바이두	구글
빙긋이	微微	微微	微微	咧嘴
지그시 ⁴	轻轻/ 轻轻/ 微/ 轻轻	轻轻/ 轻轻/ ×/ 轻轻	轻轻/ 轻轻/ 轻轻/ 轻轻	×/ 轻轻/ ×/ 轻轻

〈표 5〉를 보면 인간과 바이두 번역기는 원천텍스트에 출현하는 의태어를 모두 번역하여 의미를 살렸고, 파파고는 1회, 구글은 2회 생략하였다. 입을 슬쩍 벌릴 듯하면서 소리 없이 가볍게 웃는 모양을 묘사하는 ‘빙긋이(웃었다)’를 구글은 ‘옆으로 찢어지듯이 입을 벌리다’란 의미의 ‘咧嘴’로, 나머지는 ‘微微’로 번역하여 의미를 살리고 있다. ‘지그시’는 슬그머니 누르거나 당기는 모양 혹은 눈을 약간 찡그리듯이 슬그머니 감는 모양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 원천텍스트에 ‘지그시’는 4회 출현하는데 인간번역에서는 ‘지그시(누르며, 밟으니, 눌러)’를 ‘轻轻’으로, ‘지그시(눈을 감고)’는 ‘微’로 문맥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번역기는 모두 ‘轻轻’으로 번역하고 있다.

(2) 인간과 기계의 번역이 다른 경우

3음절 한국어 의태어를 인간과 번역기로 각각 중역한 양상이 다른 경우는 9종류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인간과 기계의 번역이 다른 경우

의태어	인간번역	파파고	바이두	구글
부르르	×	哆哆嗦嗦	哆嗦	×
스르륵 ²	×/ 自动	×/ 呼噜噜	×/ 哗啦一声	×/ ×

의태어	인간번역	파파고	바이두	구글
슬며시	微微	×	偷偷	暗暗
어슬렁	慢吞吞	漫(步)	漫(步出来)	×
우수수	统统	纷纷	纷纷	×
작작작 2	×/ ×	有条不紊/ ×	一丝不苟/ 有条不紊	×/ 顺利
파르르	瑟瑟	微微	微微	×
헤벌레	很灿烂	咧着嘴	咧嘴	狂(笑)
화들짝 3	大惊失色/ (吓了)一跳/ 大吃一惊	(吓了)一跳/ (吓了)一跳/ (吓了)一跳	(吓了)一跳/ (吓了)一跳/ ×	震惊/ 吃了一惊/ (吓了)一跳

〈표 6〉을 보면 기계번역의 결과는 파파고와 바이두가 상당히 비슷하며, 구글 번역기는 번역하지 않고 생략한 경우가 7회로 가장 많다. 사람이나 물체 따위가 조금 크게 떨거나 떨리는 모양을 묘사하는 ‘부르르’와 일이 차례대로 순조롭게 잘 되어 나가는 모양을 표현하는 ‘작작작’은 인간번역에서는 의미를 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바이두와 파파고에서는 ‘(휴대폰이) 부르르(떨다)’를 ‘부들부들 떨다’란 의미의 ‘哆嗦’와 그 중첩형 ‘哆哆嗦嗦’로 번역하였다. ‘작작작’은 2회 출현하는데, ‘작작작(식사 준비를 하고)’과 ‘작작작(진행되는)’을 파파고는 한번은 생략하고 한번은 ‘질서 정연하다’란 의미의 성어 ‘有条不紊’로, 바이두는 ‘조금도 빈틈이 없다’란 의미의 성어 ‘一丝不苟’와 ‘有条不紊’로, 구글은 전자는 생략하고 후자는 ‘顺利’로 번역하였다.

물건이 쏠리면서 시원스럽게 나는 소리나 모양을 표현하는 ‘스르륵’은 2회 출현한다. 먼저 출현하는 ‘스르륵(줄음이 쏟아질)’은 모두 생략하였고, ‘(문은) 스르륵(닫혔다)’은 인간은 ‘自动’으로, 파파고는 어떤 물체가 빠르게 스쳐지나가거나 어떤 동작의 속도가 매우 빠른 모습을 표현하는 ‘呼噜噜’로, 바이두는 의성어 ‘哗啦一声’으로 번역하였다. 몸집이 큰 사람이나 짐승이 몸을 조금 흔들며 천천히 걸어 다니는 모양을 묘사하는 ‘어슬렁

(걸어나와)’을 인간은 ‘느릿느릿하다’란 의미의 ‘慢吞吞’으로, 파파고와 바이두는 ‘漫(步, 步出来)’으로 번역하였다. 기계가 번역한 의미는 산보하듯 한가로이 걷는 느낌에 더 가깝고, 인간이 조금 더 원천텍스트 의미에 가깝게 번역한 듯하다. 원천텍스트에서 물건이 수북하게 떨어지는 모양을 표현하는 의미로 쓰인 ‘(명함과 썬, 클립, 스테이플러와 딱풀 등이) 우수수 (떨어져)’를 인간은 ‘统统’으로 파파고와 바이두는 ‘纷纷’으로 번역하였다. 떨어진 물건이 대부분 무게감이 있는 만큼 연이어 떨어졌다기보다는 한꺼번에 모두 떨어져 책상 위 고무판을 덮은 의미여서 인간번역이 좀 더 의미를 잘 살린 듯하다.

기분이 좋아서 입이 넓게 벌어진 모양을 묘사하는 ‘헤벌레 (웃고)’를 인간은 환하게 웃는 의미의 ‘(笑得)很灿烂’으로, 파파고와 바이두는 ‘씩’ 혹은 ‘히죽’ 웃는 모양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咧嘴’로 번역하였다. 구글은 ‘미친 듯이 웃는다’란 의미의 ‘狂(笑)’로 번역했는데, 구글 번역이 가장 원문의 의미와 거리가 먼 것 같다. 별안간 호들갑스럽게 펄쩍 뿜 듯이 놀라는 모양을 묘사하는 ‘화들짝 (놀라)’은 3회 출현하는데 인간과 구글 번역기는 3회 모두 각각 다르게 번역하여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파파고와 바이두는 모두 ‘(吓了)一跳’로 번역하였다.

4. 4음절 의태어

4음절 의태어는 ‘가닥가닥(2회), 간질간질, 경중경중, 고래고래, 구불구불, 군데군데(2회), 깜짝깜짝, 꼬박꼬박, 꾸벅꾸벅(2회), 꾸역꾸역(2회), 낚얏낚얏, 달싹달싹, 더덕더덕, 데구르르, 도란도란, 듬성듬성, 또박또박, 물끄러미(6회), 바들바들, 바싹바싹, 보글보글, 부글부글, 불끈불끈, 비질비질, 비쪽비쪽, 비틀비틀, 뻘죽뻘죽, 성큼성큼(4회), 스멀스멀(2회), 슬그머니(3회), 슬쩍슬쩍, 안절부절, 어슴푸레, 엉거주춤, 오들오들, 오물오물, 우두커니, 우물우물(3회), 으슬으슬, 이리저리(12회), 잘근잘근, 질레질레(5회), 주절주절, 주춤주춤, 지글지글, 쭈뼛쭈뼛, 펼쩍펼쩍, 한들한들, 허겁지겁, 허

등지둥(2회), 흔들흔들’ 등 모두 51종류이다.¹⁸⁾

(1) 인간과 두 종류 이상의 기계가 번역한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4음절 한국어 의태어를 인간과 두 종류 이상의 번역기로 중역한 결과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4종류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인간과 기계의 번역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의태어	인간번역	파파고	바이두	구글
간질간질	痒痒	痒痒	痒痒	×
바삭바삭	口干舌燥	嘴干舌燥	口干舌燥	×
성큼성큼 ⁴	×/ 大步/ 大步流星/ 大步	×/ ×/ 大步/ 大步	大步/ 大步/ 大步/ 大步	×/ ×/ ×/ 大步
안절부절	坐立不安	坐立不安	坐立不安	不安

〈표 7〉을 보면 바이두 번역기는 4종류 의태어를 생략하지 않고 모두 번역하였고, 구글 번역기는 번역하지 않고 생략한 경우가 5회로 가장 많다. 표에 보이는 4종류 의태어는 의미가 분명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기가 어렵지 않아서 생략한 예들을 제외하고는 인간과 기계 번역이 모두 문맥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

(2) 인간과 기계의 번역이 다른 경우

4음절 한국어 의태어를 인간과 번역기로 각각 중역한 양상이 다른 경우는 47종류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이 중 ‘깜짝깜짝, 꼬박꼬박, 꾸벅꾸벅, 바삭바삭, 불끈불끈, 비쭉비쭉, 성큼성큼, 슬쩍슬쩍, 질레질레’는 2음절 단어 ‘깜짝, 꼬박, 꾸벅, 바삭, 불끈, 비쭉, 성큼, 슬쩍, 질레’와 같이 출현하고 있다.

〈표 8〉 인간과 기계의 번역이 다른 경우

의태어	인간번역	파파고	바이두	구글
가다가다 2	支离破碎/ ×	一条条/ ×	×/ 一缕一缕	一根一根/ ×
경중경중	蹦蹦跳跳	翩翩	蹦蹦跳跳	×
고래고래	高声	高声	大喊大叫	大声
구불구불	弯弯曲曲	×	蜿蜒曲折	蜿蜒
군데군데 2	×/ ×	到处/ 随处	到处/ ×	到处/ ×
깜짝깜짝	×	(吓了)一跳	(吓了)一跳	×
꼬박꼬박	都	按时	按时	×
꾸벅꾸벅 2	点头/ ×	×/ ×	×/ ×	×/ ×
꾸역꾸역 2	落满/ ×	密布/ ×	密密麻麻/ 咕嘟咕嘟	稳定/ ×
늪냇늪냇	慢吞吞地	×	徐徐	×
달씩달씩	震颤不已	晃晃悠悠	叮叮当当	叮当声
더덕더덕	×	层层	沙沙	×
데구르르	×	咕噜咕噜	骨碌骨碌	×
도란도란	有说有笑	窃窃私语	窃窃私语	×
듬성듬성	稀稀落落	稀稀落落	稀疏	稀疏
또박또박	一字一顿	一字一句	一丝不苟	很清楚
물끄러미 6	怔怔/ 怔怔/ 茫然/ 茫然/ 怔怔/ ×	愣愣/ 呆呆/ 呆呆/ 呆呆/ 愣愣/ 默默	呆呆/ 呆呆/ 呆呆/ 呆呆/ 呆呆/ 默默	默默/ ×/ ×/ 一脸茫然/ ×/ ×
바들바들	瑟瑟	瑟瑟	哆嗦	颤抖
보글보글	噗噜噗噜	咕嘟咕嘟	咕嘟咕嘟	×
부글부글	噗噜噗噜	咕噜咕噜	咕嘟咕嘟	起泡的
불끈불끈	突然	×	×	×
비질비질	不停	簌簌	簌簌	×
비죽비죽	翘起	翘起	歪歪扭扭	散乱
비틀비틀	摇摇晃晃	×	摇摆摆摆	错开
삐죽삐죽	尖锐	翘起	×	尖头
스멀스멀 2	轻轻/ 慢慢	×/ ×	扑簌簌/ ×	×/ 悄悄

의태어	인간번역	파파고	바이두	구글
슬그머니 3	轻轻/ 悄悄/ 悄悄	悄悄/ 悄悄/ 悄悄	偷偷/ 偷偷/ 悄悄	缓缓/ 悄悄/ 悄悄
슬쩍슬쩍	(瞥了)一眼	悄悄	偷偷	(看了)一眼
어슴푸레	隐约	朦胧	隐约	冉冉
엉거주춤	点头哈腰	踌躇	踌躇不前	犹豫
오들오들	发抖	哆哆嗦嗦	哆嗦	颤抖
오물오물	叽里咕嘈	细嚼慢咽	细嚼慢咽	×
우두커니	呆(立)	×	呆呆	×
우물우물 3	×/ ×/ ×	嚼着嚼着/ ×/ ×	吞吞吐吐/ 吞吞吐吐/ 支支吾吾	×/ ×/ ×
으슬으슬	瑟瑟	冷嗦嗦	瑟瑟	颤抖
이리저리12	稀里糊涂/ 四处张望/ ×/ ×/ 四处/ 千方百计/ 横冲直撞/ 四处/ 乱动/ 动来动去/ 滴溜溜/ ×	东流西流/ 来回/ ×/ 到处/ ×/ 到处/ 撞来撞去/ 到处/ 跑来跑 去/ 到处/ 转来转去/ ×	东奔西走/ 转来转去/ ×/ 来回/ 到处/ 到处/ 撞来撞去/ 到处/ 跑来跑去/ 东奔西走/ 转来转去/ 翻来翻去	到了这里、那 里/ 左右/ 晃来晃去/ 到处/ ×/ 以这种或那种 方式/ ×/ 跳来跳去/ 跳来跳去/ 四处/ 翻了又翻/ ×
잘근잘근	碎片	×	嘎吱嘎吱	小块
질레질레 5	连连/ 不停/ 连连/ ×/ 摇了摇	×/ 摇了摇 / 摇摇/ 摇摇/ 摇了摇	摇摇/ 摇了摇/ 摇摇/ ×/ 摇摇	摇摇/ 摇了摇/ 摇摇/ 摇摇/ 摇摇
주절주절	逐字逐句	唠唠叨叨	一个接一个	一周又一周
주춤주춤	迟迟疑疑	犹犹豫豫	踌躇不前	犹豫着
지글지글	吱吱	噗噗噗	灼热	滋滋作响
쭈뼛쭈뼛	怒发冲冠	直竖直	竖起来	毛骨悚然
펄쩍펄쩍	活力四射	蹦蹦跳跳	暴跳如雷	跳跃奔跑
한들한들	慢悠悠	摇摇晃晃	摇摇摆摆	快步

허겁지겁	慌忙	狼吞虎咽	狼吞虎咽	赶紧
허둥지둥 2	慌里慌张/ 慌里慌张	慌慌张张/ 慌慌张张	慌慌张张/ 慌慌张张	×/ 赶紧
흔들흔들	闪闪烁烁	摇摇晃晃	摇摇摆摆	摇晃着

〈표 8〉을 분석하여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인간과 세 종류 번역기의 중역한 결과가 같은 의미나 유사한 의미로 번역하여 원천텍스트의 의미를 살린 경우는 12종류이다. 예를 들면 ‘고래고래, 듣성듣성, 물끄러미(일부), 바들바들, 부글부글, 슬그머니, 으슬으슬, 이리저리(일부), 절레절레, 주춤주춤, 허겁지겁, 허둥지둥’ 등이다. 세 종류 번역기 간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파파고와 바이두 번역기가 중역한 양상이 가장 비슷하다. 예를 들면 ‘군데군데, 깜짝깜짝, 꼬박꼬박, 도란도란, 물끄러미, 보글보글, 부글부글, 비질비질, 엉거주춤, 오들오들, 오물오물, 이리저리, 절레절레, 한들한들, 허겁지겁, 허둥지둥, 흔들흔들’ 등이 같은 뜻이거나 비슷한 의미의 표현으로 번역하였다. 이에 반해 구글 번역기는 생략하여 의미를 살리지 못한 곳이 29회로 가장 많고, 번역 양상도 두 번역기와 차이가 크며, 번역 오류로 판단되는 예도 5회로 가장 많다.

번역 오류로 판단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군데로 잇따라 많은 사람이나 사물이 몰려가거나 들어오는 모양을 묘사하는 ‘(검은 구름이) 꾸역꾸역(내려오고 있었다)’을 인간은 ‘落满(了乌云)’으로, 파파고는 ‘(黑云)密布地(飘落下来)’로 바이두는 ‘(黑云)密密麻麻地(下着)’로 번역하였으나, 구글은 ‘(乌云)稳定地(飘落)’로 잘못 번역하였다. 힘이 없거나 어지러워서 몸을 바로 가누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쓰러질 듯이 걷는 모양을 묘사하는 ‘비틀비틀’을 인간은 ‘摇摇晃晃’으로, 파파고는 생략하여 의미를 살리지 않았고, 바이두는 ‘摇摇摆摆’로, 구글은 ‘错开’로 잘못 번역하였다. 빛이 약하거나 멀어서 어둡고 희미한 모양을 묘사하는 ‘(멀리서) 어슴푸레 (떠오르는)’를 인간과 바이두는 ‘(远处)隐约(升起)’로, 파파고는 ‘(远处)朦胧(升起)’로 번역하였으나, 구글은 ‘(远方)冉冉(升起)’으로 원천텍스트의 의미와

차이가 크게 번역하였다. 말을 낮은 목소리로 계속하는 모양을 표현하는 ‘(책을 읽듯이) 주절주절(사주풀이를 이어나갔다)’을 인간은 ‘(像念书似的) 逐字逐句地(解释起来)’로, 파파고는 ‘(像读书一样), 唠唠叨叨地(解开了生辰八字)’로, 바이두는 ‘(像读书一样), 一个接一个地(读着)’로 번역하였으나, 구글은 ‘(继续算命), 一周又一周(就像在看书一样)’로 잘못 번역하였다. 가볍게 이리저리 자꾸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학교를 향해) 한들한들(걸어가기)’을 파파고는 ‘(向学校) 摇摇晃晃地(走去)’로, 바이두는 ‘摇摇摆摆地(向学校走去)’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慢悠悠地(往学校走去)’로, 구글은 ‘快步(朝学校走去)’로 잘못 번역해 원천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인간번역에서는 생략하여 의미를 살리지 못했으나 번역기에서는 생략하지 않고 번역하여 원문의 느낌을 살린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군데 여기저기에 있는 모양을 묘사하는 ‘군데군데’는 2회 출현하는데 인간번역에서는 모두 생략하였으나, 파파고는 ‘到处/ 随处’로, 바이두와 구글은 첫 번째 출현하는 문장에서는 ‘到处’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생략하였다. 갑작스럽게 자꾸 놀라는 모양을 묘사하는 ‘깜짝깜짝(놀란다고)’을 인간과 구글은 생략하였으나, 파파고와 바이두는 ‘(吓了)一跳’로 번역하여 의미를 살렸다. 자그마한 것들이 곳곳에 많이 붙어있는 모양을 묘사하는 ‘(각질이) 더덕더덕(얹아 있을)’을 인간과 구글에서는 생략하였고, 바이두는 모래나 눈 위를 걸을 때 혹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칠 때 나는 소리를 표현하는 ‘沙沙’로 잘못 번역하였고, 파파고 번역기만 ‘层层’으로 번역하여 의미를 살리고 있다. 약간 크고 단단한 물건이 단단한 바닥에서 구르는 모양이나 소리를 표현하는 ‘데구르르(굴러)’¹⁹⁾를 인간과 구글은 번역하지 않고 생략하였다. 파파고는 물건이 굴러가면서 내는 소리를 표현하는 ‘咕嘈咕嘈’로, 바이두는 굴러가는 모양을 묘사하는 ‘骨碌骨碌’로 번역하여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 음식물을 입안에 넣고 시원스럽지 않게 자꾸 씹는 모양을 표현하

19) ‘데구르르’는 ‘데구루루’의 잘못된 표현이다. (《한국어 시능말 사전》) 하지만 원천텍스트에는 ‘데구르르’로 표현되어 있다.

는 ‘우물우물 (썹으며)’은 3회 출현하는데, 인간과 구글에서는 3회 모두 번역하지 않고 생략하였다. 파파고는 뒤에 오는 동사 ‘썹으며’와 같이 번역하여 ‘嚼着嚼着’로 1회 번역하고, 나머지 두 번은 모두 생략하였다. 바이두는 말을 시원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안에서 자꾸 증얼거리는 모양을 표현하는 ‘우물거리다’의 ‘呑呑吐吐/ 支支吾吾’로 잘못 번역하고 있다.

인간은 번역하였으나, 세 종류 번역기에서 모두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은 의태어는 ‘꾸벅꾸벅’과 ‘불끈불끈’이다. 머리나 몸을 앞으로 자꾸 많이 숙였다가 드는 모양을 묘사하는 ‘꾸벅꾸벅 (즐기도 했다)’은 2회 출현하는데 인간은 한 번은 ‘点头(打瞌睡了)’로 번역하였고, 한번은 생략하였다. 하지만 번역기에서는 모두 의미를 살리지 않고 생략하였다. 흥분하여 잇따라 성을 율컹 내는 모양을 표현하는 ‘(마음속에선) 불끈불끈 (억하심정도 꿈틀 될 테지)’을 인간은 ‘突然’으로 번역하여 의미를 살렸으나, 번역기에서는 모두 생략하였다.

세 종류 기계번역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인간이 번역한 내용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경우가 바이두는 17종류, 파파고는 13종류, 구글은 9종류이다. 예를 들면 바이두는 ‘경중경중, 고래고래, 구불구불, 뉘엿뉘엿, 듕성듕성, 물끄러미, 바들바들, 보글보글, 부글부글, 비틀비틀, 슬그머니, 어슴푸레, 우두커니, 으슬으슬, 이리저리(일부), 주춤주춤, 허둥지둥’이고, 파파고는 ‘고래고래, 듕성듕성, 물끄러미, 바들바들, 보글보글, 부글부글, 비쭈비쭈, 슬그머니, 어슴푸레, 으슬으슬, 이리저리(일부), 주춤주춤, 허둥지둥’이며, 구글은 ‘고래고래, 구불구불, 듕성듕성, 바들바들, 부글부글, 슬그머니, 으슬으슬, 이리저리(일부), 주춤주춤’ 등이다. 이처럼 바이두의 4음절 의태어 번역이 인간번역과 가장 유사하게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세 종류 번역기의 번역 결과를 통해 바이두와 파파고가 4음절 한국어 의태어 중역에 대한 딥러닝이 더 많이 진행되어 데이터를 구글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Ⅲ. 결론

한국어에서 의태어는 한자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유어로서 구어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에도 많이 사용하여 修辭學적 효과를 살리고 있다. 하지만 한자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의태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번역과정에서 많이 생략하기도 한다. 하지만 표현의 차원에 속해 존재 여부가 의미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나, 번역과정에서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작가가 의도하는 수사학적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²⁰⁾ 이처럼 인간번역사가 번역하기에도 쉽지 않은 의태어를 번역기가 어느 정도까지 원천텍스트 속 문맥의 의미를 살려 번역해 낼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작업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인간번역사와 파파고, 바이두, 구글 세 종류 번역기의 중역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한 작품은 김영하의 《빛의 제국》이고, 인간번역본은 薛舟가 번역한 《光之帝國》이다. 원천텍스트에 출현한 의태어는 153종류이고, 출현 횟수는 396회이다. 음절 단위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1음절 22종류, 2음절 69종류, 3음절 11종류, 4음절 51종류로 2음절 의태어가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다.

한국어 의태어의 인간과 기계의 중역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팅, 살살, 지그시, 간질간질’ 등과 같이 묘사하는 동작이나 상태가 비교적 명확한 의태어는 인간과 세 종류 번역기의 번역 결과가 거의 일치하였다. 여러 번 출현하는 의태어를 인간번역사는 몇 가지 형태로 변화를 주어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번역기는 한가지 형태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문의 의미를 살리지 않고 의태어를 생략한 경우는 구글 번역기가 가장 많았으며, 번역 오류도 가장 많았다.²¹⁾ 이에 반해 바이두는 인간번역보다 더

20) 정영지, 앞의 논문, 383쪽.

21) 원천텍스트 속의 의태어를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적게 생략하였고, 번역 결과도 인간번역과 가장 유사하며, 일부 의태어의 경우 인간번역사보다 더 원문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세 종류 기계 번역기 중 한국어 의태어 중역에 있어서는 바이두 번역기가 딥러닝이 가장 많이 진행되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구글 번역기가 딥러닝이 덜 진행되어 데이터를 가장 적게 가지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생략과 오류가 가장 많은 구글 번역기의 번역 결과를 제외하고, 파파고와 바이두 두 번역기의 중역 결과는 인간번역사의 번역과 상당히 유사하며,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번역기는 딥러닝을 통해 계속 발전할 것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정교하게 한국어 의태어를 번역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생성형 AI의 발전과 대중화로 다방면에 이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어 교육현장에서도 기계번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에 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기존의 교수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과학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번역기와 비교 대상인 인간번역사를 1인으로 한정된 것에는 아쉬움이 크다. 여러 번역사의 작품을 선택해 분석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작업이라 수행하지 못했다. 다음 기회에 더 많은 번역사의 작품을 가지고 기계 번역기와 Chat GPT까지 활용하여 후속 연구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같다. 1음절: 인간 31회, 파파고 24회, 바이두 16회, 구글 39회/ 2음절: 인간 31회, 파파고 33회, 바이두 25회, 구글 55회/ 3음절: 인간 4회, 파파고 4회, 바이두 2회, 구글 9회/ 4음절: 인간 17회, 파파고 20회, 바이두 9회, 구글 34회.

< 참고문헌 >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2015.
- 김명순, 〈의성·의태어의 한중 번역에 관한 연구: 정호승의 향아리에 등장한 표현을 중심으로〉,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3(4), 2016.
- 김영하, 《빛의 제국》 2판, 파주: 문학동네, 2020.
- 김지은, 〈AI 시대의 번역학 연구 방향 모색: 한중 기계번역 연구동향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39집, 2024.
- 남철진, 〈中韓(韓中) 번역을 통해 본 구글번역(GNMT)의 문제〉, 《중국과 중국학》 34, 2018.
- 박선자·김문기·정연숙, 《한국어 시늬어 사전》, 부산: 세종출판사, 2014.
- 박정희·강병규, 〈챗GPT에 기반한 중국문학작품 번역 방법론 탐구〉, 《중국문학》 제119집, 2024.
- 신경미, 〈기계번역에서 기능동사의 처리 문제〉, 《중국인문과학》 70집, 2018.
- 이상빈, 〈기계번역에 관한 KCI 연구논문 리뷰: 인문학 저널 논문(2011~2020년 초)의 논의내용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2(2), 2020.
- 이주리에, 〈인공신경망 기계 번역의 한일/일한 번역 품질에 대한 예비연구 - 품질향상 검토와 교열코드 적용〉, 《통역과 번역》 20(1), 2018.
- 이현주, 〈한국문학작품의 번역품질제고를 위한 중국어 번역전략 연구-의성·의태어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2(1), 2020.
- _____, 〈웹툰 상징어의 중국어 번역양상 연구〉, 《번역학연구》 21(3), 2020.
- 정영지, 〈《혀》와 《고래》 속의 의태어 中譯 양상 고찰〉, 《언어과학연구》 제86집, 2018.
- _____, 〈《빛의 제국》 중국어 번역본 의태어 비교 분석: 대륙본과 타이

- 완본), 《中國語文學》 제86집, 2021.
- _____, 《효과적인 의태어 번역전략: 한국 현대소설의 중국어 번역을 중심으로》, 서울: 역락, 2022.
- 최재봉, 《AI사피엔스: 전혀 다른 세상의 인류》, 서울: 쌤앤파커스, 2024.
- 홍연옥, 〈한중 기계번역을 활용한 오류 수정 및 생산성 연구〉, 《中國語文學》 제90집, 2022.
- 황지연, 〈한국 웹툰 중국어 번역의 시청각적 수용성에 관하여-‘신과 함께’ 사례 분석〉,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19(57), 2018.
-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5.
- 薛舟 譯, 《光之帝國》,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2.
- 中國社會科學院言語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 第6版, 商務印書館, 2015.

<Abstract >

This study focused on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ranslation results of Korean mimetic words into Chinese by human translators and three types of machine translation software: Papago, Baidu, and Google. The analyzed work is Kim Young-ha's "*The Empire of Light*," and the human translation is Xue Zhou's "光之帝國". There are 153 types of mimetic words in the original text, and the number of times they appear is 396.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ranslation situation of Korean mimetic words, Google Translate omitted the most cases without preserving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and also had the most translation errors. In contrast, Baidu omitted fewer words than human translators, and its translation results were also the most similar to

human translation. Through this, we can infer that among the three types of machine translators, Google Translate has the least amount of data because deep learning has not progressed as much as the other two translators for Korean mimetic words, while Baidu Translate has the most data because deep learning has progressed the most.

Keywords: 의태어(mimetic word), 인간번역(human translation),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 빛의 제국(*The Empire of Light*)